



정경택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

“기초과학연구원장의 학문적 권위가 독립성·자율성 보장 수단될 것”

정경택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은 ‘해결사’로 불린다. 지난해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 정책조정기획관으로 부임해 국가 연구개발 컨트론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다음 해걸 주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었다. 그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구성해 2년여를 끌어온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지난 5월 마무리했다. 과학벨트 사업은 여전히 국내외 과학자들의 관심 대상 0순위다. 올 연말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고 내년엔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 25개가 선정된다.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글_이현경 동아사이언스 기자 uneasy75@donga.com

○○○기초과학연구원장 지원자가 있나? 7월 초 기초과학연구원장을 초빙한다는 공고를 냈다.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에도 광고를 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해내려면 세계적인 석학을 원장으로 모셔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공모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아직 이렇다 할 지원자는 없다. 원장추천위원회가 좋은 분을 열심히 찾고 있다.

○○○재외 한국인 과학자나 외국인도 원장에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제약은 없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연구소처럼 우수한 연구소의 석학이 기초과학연구원장에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일이다. 다만 한국적 정서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적합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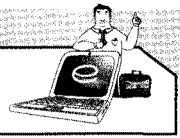
○○○ 기초과학연구원장에게는 어떤 자질이 가장 중요하겠는가? 처음 설립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능력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대 원장은 임기 5년간 기초과학연구원을 세팅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KAIST나 포스텍처럼 기존 시

스템이 굴러가는 상황에서 수장만 바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더욱 까다로운 편이다.

○○○학문적 자질보다는 행정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다. 기초과학연구원장은 학문적 경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분야에서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넘버 1’ 급은 돼야 한다. 특히 연구원 산하의 연구단 선정 전권이 원장에게 있는 만큼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나야 한다. 스스로 학문적 권위가 없으면 연구단을 선정할 때 외부 여론에 끌려 다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본인의 학문적 권위가 원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원장의 연봉이 5억 원 안팎으로 정해진다는 게 맞나? 아니다.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명시돼 있다.

○○○언제쯤 원장의 윤곽이 드러날까? 원장추천위원회가 10



명 안팎의 원장 후보자 풀을 만들어 10월경 3명으로 추린다. 연말에는 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내년에 연구단(사이트랩) 25개를 선정하나? 수월성 기준이 우선이다. 수월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연구단 수를 채우기 위해 선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연합캠퍼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KAIST에 10개 내외, DUP연합캠퍼스에 10개 내외, GIST에 5개 내외의 연구단이 가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이들 학교에 정해진 개수만큼 연구단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연합캠퍼스로 지정된 대학에 연구 사업을 주는 게 아니란 뜻이다. 수월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최우선 조건이다.

○○○그렇다면 연합캠퍼스의 역할은 뭔가? 연합캠퍼스로 지정된 대학의 거버넌스를 이용해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연구단의 기본 철학이다. 기존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해 연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당 대학에 있는 연구원이 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지만 다른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연구원을 데려올 수 있다.

○○○연합캠퍼스는 자리만 내주는 셈인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연구단의 첫 번째 조건이 수월성인 만큼 연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수준도 마찬가지로 높을 것이다. 그런 연구단이 있다면 대학의 수준도 함께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연합캠퍼스로 지정된 대학은 연구단으로 인해 '점프 업'의 기회를 얻는 셈이다.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단에 선정되는 '비결'은? 연구단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리라 본다. 연구단장은 본인의 학문 분야에서 스스로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느끼면 들어올 수 있다. 외국에 있는 석학들까지도 자기 수하에 두고 끌어당길 수 있는 정도라면 연구단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 교수급 핵심 연구자 3~5명을 꾸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연구단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으로 우월한 게 가장 중요하다. 분야는 기초과학이 베이스가 될 것이다. 다른 분야를 융합하더라도 연구의 근간은 기초과학에 뒤편해야 한다.

○○○연구단장의 처우는? 연봉 등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초과학연구원장이 정하게 된다. 연구단장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연구단의 규모와 연구 분야에 따라 연봉을 일정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길을 열어해놓을 계획이다.

○○○연구단 하나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 최대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성을 인정할 계획이다. 연구단을 무조건 50명으로 꾸려야 되는 건 아니란 뜻이다. 5명이 될 수도 50명이 될 수도 있다. 연구 주제가 이론이나 실험이나에 따라 연구단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연구 주제가 비슷하더라도 수월성 기준만 충족된다면 2개를 선정할 수도 있다. 계획된 중복은 선의의 경쟁을 불러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낸다고 하지 않던가.

○○○연구단 선정은 정부(교과부)가 진행하는가? 아니다. 연구단장 선임을 비롯해 연구단 선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기초과학연구원장이 갖고 있다. 원장에게 전권을 준다는 것이다. 원장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선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연구단은 국내에만 만들 수 있나? 아니다. 해외에도 연구단을 둘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생기면 대전에 있는 기존 출연연구소가 그 산하로 이관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아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 출연연은 연구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말 그대로 기초과학 연구를 진행한다. 반면 출연연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있듯이 연구 목적이 뚜렷하다. 기초과학연구원이 A급, 출연연이 B급,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니란 뜻이다.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출연연은 응용, 전략기술 개발이 존립 이유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그간 무임승차만 해온 기초과학 분야를 우리나라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설립 취지가 엄연히 다르다.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계획을 만드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중이온가속기도 개념설계에 대한 국제자문위원단의 검토를 끝내고 상세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ST**